

지역 소식통

정읍시, 2017년도 농촌진흥사업 75개 사업 70억9천만원 확정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2017년 농촌진흥사업으로 75개 사업 70억9천만원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식량작물 14개 사업 36억7천만원, 소득작목 32개 사업 23억9천만원, 농촌사회 29개 사업 10억3천만원이다.

시는 "이들 사업을 농업과학 기술 보급과 유기적으로 연계·추진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정부시책과 발 맞춰 사업별 목적에 따라 재정 조기집행에도 적극 동참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술센터는 지난 20일 정읍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열어 식량작물·축산분과, 소득작목분과, 농촌사회분과 3개 분과로 나눠 심의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김제 성덕면 쌀밭조건직불제 농업경영체 등록 접수기간 운영

김제시 성덕면은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면사무소 복지화관에서 쌀·밭·조건직불제 직불제 사업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접수 관련 농관원품질관리원에서 출장하여 집중 접수기간을 운영하였다.

집중 접수 기간 동안 방문 민원에는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 기재 방법 등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한다.

신청기간은 4월 28일까지이며, 쌀·밭·조건직불제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인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신청서를 작성해 첨부서류와 함께 집중접수기간 내에 공동접수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집중접수 기간 종료 후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김제=곽노태기자

정읍시의회, 2017년 국외연수 추진

정읍시의회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8박 10일간의 일정으로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서유럽 4개국으로 연수를 떠난다.

이번 국외연수는 서유럽 선진지역의 오랜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한 고건축물 탐방을 통하여 정읍지역 역사문화의 활용 가치를 제고하고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도시경관 및 도시 공간 활용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정읍시 도시디자인에 접목 할 목적으로 의원 17명 중 총 11명이 참여하게 되었다.

정읍시의회는 서유럽 선진국 연수를 통해 더 많이 보고 배우고 벤치마킹을 통해 향후 의정활동에 다양하게 접목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민선6기 공약사항 평가

71건 중 66건 완료... 추진율 93%

35건 '정상 추진' '부진' 4건 '보류' 1건으로 나타나

민선 6기 부안군 공약사항 10건 중 9건은 이미 완료됐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부안군은 지난 20일 군청 5층 중회의실에서 제3기 공약이행평가(단장 박명찬) 회의를 열고 민선 6기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평가한 결과 전체 71건 중 93%인 66건이 '완료'되고 35건이 '정상' 추진되고 '부진' 4건과 '보류' 1건으로 나타났다.

공약이행평가단은 이번 평가에서 각 분과별 심의회를 개최하고 서면평가 및 공약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청취하는 등 물량이나 사업비 집행실적에 의한 단순 비교평가를 지양하고 전체

적인 사업목적이나 취지를 감안해 실질적인 목표 달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분야별로는 소득을 창출하는 농업관광 분야가 '완료' 및 '정상 추진'이 23건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육복지 분야 21건, 모두가 부자 되는 지역경제 14건, 주민과 소통하는 동행행정 8건 등으로 집계됐다.

부안군 관계자는 "민선 6기 공약사항들은 군민과의 공적 약속"이라며 "공약이행평가단 등을 통해 공약 확정 및 평가에 군민 참여를 확대하고 평가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표해 투

명하고 공정하게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군은 민선 6기 공약사항 확정 및 평가 등에 군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코자 1년 단위로 공약이행평가단을 모집해 위촉하고 있으며 제3기 공약이행평가단은 지난해 11월 25명 규모로 구성해 오는 11월 9일까지 활동한다.

공약이행평가단은 민선 6기 공약사항에 대해 확정에서 평가까지 주민참여로 실시해 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군민에 대한 책임행정을 구현코자 도입됐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홍보활동 강화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보행 어려운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가능

최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정읍시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에 따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등에 따른 수칙 등을 알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 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이 어려운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고 불법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구역 좌우, 양 측면에 주차하여 진출입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설치된 모든 곳에 단속 대상이다.

현재 전라북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추진단과 한국장애인협회 전라북도협회 그리고 교통과 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단속 및 계도를 하고 있다.

일반 시민의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내 불법주차자 발견 시 행정자치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어플을 통해 위반 장소와 위반 일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첨부하여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필요 시 장애인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늦은 시간 이용자가 없을 때에도 비워두어야 하며 잠깐의 주차차량 입산부, 노약자의 주차도 불법주차로서 과태료가 부과되며 절대 주차해서는 안 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남아있는 주차공간이 아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응급상황이 아닌 한 주차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김제시, 내나라여행박람회 부스운영 '최우수상' 수상

김제시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주관으로 개최된 국내 최대 규모 관광 박람회인 '내나라여행박람회'에 참가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행사 마지막 날인 19일 총 330개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160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부스운영과 진행사항 등을 평가한 후 실시된 시상식에서 총 12개 기관(장려상 4개, 우수상 3개, 최우수상 2개, 공로상 2개, 대상 1개)이 수상했다.

김제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참여, 초기형 홍보관을 운영하며 벽골제와 금산사 등 주요 관광지 소개,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김제지평선축제의 수도권 사진 홍보, 친환경 지평선 쌀로 만든 빵튀기 시식코너 운영, 전통 민속놀이인 투호와 제기차기를 통해 무농약 지평선 쌀과 기념품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 행사를 마련하여 지평선 김제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또한 김제 지평선물에서 참여하여 지역 우수 농·특산품 전시 판매를

하였고 김제시 관광둘레 사업단에서는 순수 제작한 짚풀공예 등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관광객들에게 한지공예 및 압화 체험, 대나무피리 만들어 제공하여 관광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18일 오후에는 지평선축제 홍보대사인 배우 전원주씨가 참여하여 기념사진 촬영과, 축제에 대한 퀴즈 제공 등 깜짝 이벤트를 실시 지평선쌀과 빵튀기를 선물로 제공하여 관광객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기도 했다.

/김제=곽노태기자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중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진행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최근 지역 내 유관기관과 단체,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중증 장애인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최소동 허모 씨의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서 도배와 함께 장판을 교체하고 난방 시설도 설치하고 세탁과 대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봉사활동도 펼친 것.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한 이번 사업에는 시청 희망복지지원팀과 초산동주민센터, 정읍시지원봉사관찰소장 배홍철, (사)자연보호중앙연맹 정읍시협의회(회장 김종길), (주)S엔트론 정읍공장 사관 실천회(회장 김종필),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관장 장현욱) 등 모두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특히 도배와 장판 교체, 이동석탁, 식사비 지원 등 각 기관 단체의 성격에 맞는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사업을 효율성을 높였다.

하씨는 화상으로 지체장애 2급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모친 사망 후 강아지를 방 안에서 키우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해왔다.

하씨는 "누추하고 허름한 집이지만 어머니와 추억이 있어 떠나지 못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쾌적한 환경을 선사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앞으로 깨끗하게 청소하며 살겠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열악한 재가 장애인들을 적극 발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김제시 행정지원국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김제시 행정지원국(행정지원국장 손삼국)은 21일 행정지원국장실에서 11개 소관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에 따른 연초 경기위축 완화를 위해 신속집행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는 2017년 행정지원국 신속집행 대상액(467억원)의 60%인 278억원에 대한 상반기 중 집행을 위해 부서별 집행실적 제고방안과 문제점의 선제적 대처를 통해 그간 예산 낭비 요인으로 지적된 비정상적 재정 집행 관행에 대한 개선 및 민간분야 체감도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행정지원국에서는 부서장 중심의 실질적·상시적 사업현황 파악 및 중점관리를 통해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조기 대응책을 마련하여 미스매칭을 최소화하고, 신속집행 효과가 큰 경상이전·지방지출 과목의 조기 지출 등 세부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또한 신속집행을 위한 회계계 약제도 이행과 실과소 발주 및 지출 애로요인 해소를 통한 자금 지원 및 집행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손삼국 행정지원국장은 금번 보고회를 통해 "김제시의 재정집행을 지원 하는 총괄파트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경인을 위해 선급 집행 등 각종 집행 제도의 적극적 활용과 전년 동기 대비 집행을 모나리닝 등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부서장을 비롯한 전 직원의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The ad features several bottles of wine and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also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